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소식지

디자인 충남

vol.3 Dec 2016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강현수

기획 및 편집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23
www.cpdc.re.kr

주최 및 협력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협력기관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공공디자인센터
Chungnam public design center

CONTENTS

Design Column

02 모두의 안전과 배려를 위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박연선 회장

Design Review

06 미래로부터 온 유산 하이라인공원(High Line Park) 홍의택 교수
14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국제 워크숍 이장범 교수

Design Level up : 컨설팅 사례

22 홍성의료원 모자보건센터 디자인 홍성의료원
24 보령시 종합체육관 신축 디자인 보령시
26 홍성군청사 외벽 색채계획 홍성군
28 보령시 한내로 디자인거리 조성 보령시
30 당진시 톨게이트 디자인 당진시
32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용차량 디자인 논산시

Design Focus : 센터 정책연구

36 충남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38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40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가이드라인 – 현수막 활용사례 –

Design Team : 당진시

44 치유와 사색의 '버그내순례길'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국내 정책 · 제도 동향

48 중앙부처
55 충청남도 및 15개 시 · 군

모두의 안전과 배려를 위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_**박연선 회장**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란, 일반인뿐 아니라 고령자, 색약자 등 개인의 유전자 특성이나 눈의 질환에 의해 다양한 색각을 가지는 모든 계층을 배려하는 컬러디자인을 말한다.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컬러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다.

고령자의 경우, 수정체의 경화와 투과율의 저하, 초점 조절 기능의 저하, 동공경의 축소, 망막감도의 저하, 시신경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시각기능이 저하되고 색 식별 기능도 저하되며 눈꺼풀의 처짐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게 되므로 복잡한 디자인과 정보에는 접근하려 하지 않는다.

색약자의 경우, 일본 남성의 5%, 유럽 남성의 8~10%가 색약자이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색약자 비율이 5%이며 대부분이 제2색약 또는 제2색맹으로 녹색약이 색약자 비율 중 71%에 이른다. 따라서 색약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색각유형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구별 가능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3년에 설립된 일본 비영리법인인 'CUDO(일본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에서는 색약자의 호칭을 C형(일반색각자), P형(적색약자), D형(녹색약자), T형(청색약자)으로 정하고 사회 의식개혁을 위한 활동과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해 국가 전체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백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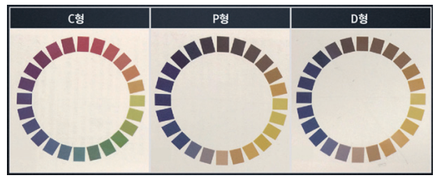
녹내장

수정체의 황변

가령성 황반변성

▶ 눈 질환에 따른 시각 시뮬레이션

한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의 경우, 2015년 1월 1일 기준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남성 51,655명, 여성 253,791명으로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관광공사 외래객 입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관광객 수는 전년도에 비해 16.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급상황 대처요령과 같이 중요한 전달사항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컬러사용과 단순한 그래픽으로 누구에게나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인 / 적색약 / 녹색약의 시각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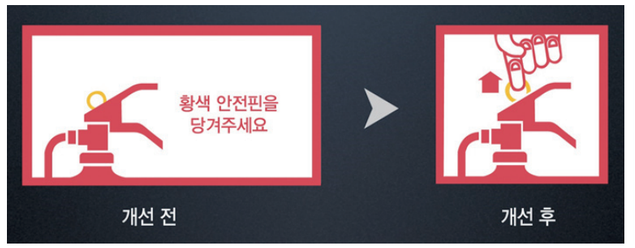
▶ 일반인의 시각 / 색약자의 시각 / CUD 적용 이미지

– 「Color Universal Design」(CUDO 著) 세계지도 예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공공디자인 진행 시 시각적 특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색약자를 배려한 색채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약자의 경우 공공문화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가이드나 지침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 및 기준 정립을 통해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공디자인 색채에 포함될 수 있는 87개의 색채 관련 법령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실천을 위한 고려사항

첫째,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배색을 선택한다.
둘째, 색을 보기 힘든 사람들에게도 정보가 전달되게 한다.
셋째, 색의 이름을 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 한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한 사인물 예시

▶ CONTAC Cold Remedy, Day & Night

* 〈CONTAC Cold Remedy, Day & Night〉 (http://www.nitto-pharma.co.jp)
: 시간대별로 복용해야 할 약의 색과 포장을 달리해 쉽게 용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감기약으로 어린이, 고령자, 외국인 등 모두가 쉽게 용법을 인지할 수 있음

Design Review

미래로부터 온 유산 하이라인공원(High Line Park)
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_홍의택 교수
06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국제 워크숍
선문대 건축사회환경학부_이장범 교수
06

미래로부터 온 유산
하이라인공원(High Line Park)

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_**홍의택 교수**

2009년 뉴욕에 하이라인이라는 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30년간 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던 고가철로가 아름다운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이라인의 개발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연간 국내외에서 200만 명이나 찾아오는 새로운 명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뉴욕의 서쪽은 오래된 산업지구로 개발이 더디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의 장애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하이라인 개발의 성공은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가져오게 했고 세계적인 컨설턴트들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하이라인 2단계 공원

하이라인은 뉴욕 서쪽 산업지구에 화물을 운반하는 고가도로 형식으로 만들어진 도심 산업철도입니다. 그래서 길지도 않지만, 또 우리나라의 육교나 고가처럼 작은 규모도 아닌 20여㎞에 이르는 철도입니다. 뉴욕시는 이 철도를 쉽게 철거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지켜만 봐 왔습니다. 이런 하이라인이 2009년 1공구를 공원으로 우선 개장하였고, 다시 2년 후에 2공구를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전체의 2/3가량이 매력적인 생태공간으로 탈바꿈되어 뉴욕의 시민과 영성적인 방문객들에게 놀라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라인 공원 디자인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한 미국 디자인답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1구간은 다소 단조롭고 산책로와 같지만 2구간은 쉼터와 공공미술작품 등 훨씬 다채롭고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하이라인의 철길 흔적

각 구간의 통로들은 입체감이 넘치며, 주변의 건축물과 기존 시설, 그리고 풍경과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조경 디자인은 훨씬 깊이가 있고 지혜롭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철길 옆 푸른 허드슨 강을 상징하는 푸른 꽃을 심고 작위적인 조경이 아닌 수십 년간 이 철로 위에 뿌려진 야생화와 들풀, 들꽃으로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심이 없는 고가공원이라 복토(覆土) 상황을 항상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민단체와 봉사자들이 마치 자신의 정원을 돌보듯 이 공간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하이라인에 올라서면 확실히 감동적입니다. 일단 지상이 아닌 9m 높이에서 평소에 보기 힘든 도시 경관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매력입니다. 또한, 철길이라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기억이 묘한 흥분감을 주기도 합니다. 건물 사이로 난 좁은 철길 통로는 보행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지만 건물 사이로 개방된 시각통로들이 한편으로는 허드슨 강을,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뉴욕의 도심 조망을 하늘길로 연결해주어 극적인 감흥을 전달해 줍니다.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개방하는 공원으로 석양을 등진 시간에도 번화가와는 다른 고즈넉한 풍광을 연출하고, 인적이 드문 웨스트 맨해튼의 하이라인의 야경은 마치 방문자들이 영화배우가 된 것 같은 극적인 감흥을 느끼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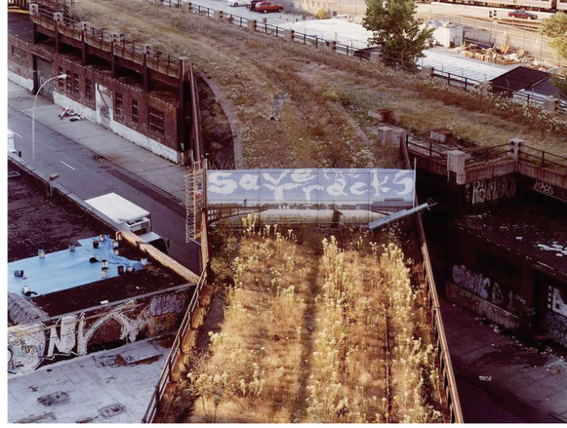
저의 하이라인에 대한 관심은 정부에서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자문하던 때로 군산시의 옥구선, 아산시의 장항선 등 우리나라 폐철도에 관해 연구할 때였습니다. 제가 만나는 우리나라의 폐철도 문제로 지역사회들은 철거냐? 보존인가?란 이슈로, 전문가들은 보존하되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로, 정부는 혹 예산확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태평양을 건너 뉴욕에 지역갈등을 극복한 폐철도의 성공적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이라인이었습니다. 하이라인에 대한 여러 보고서와 계획을 살펴보니 공개된 홈페이지와 마스터플랜 등 수많은 자료사진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경이로웠고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첫째는 하이라인의 커뮤니티 정체성과 개발 배경에 관한 문제였고, 둘째는 10년간 진행해온 거버넌스의 협의 문제, 셋째는 설계를 추진한 설계팀의 역량과 프로세스, 그리고 혹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요소는 없는 가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이라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영욕의 80년 하이라인(High Line)

하이라인은 일반 철도가 아닌 산업철도입니다. 1930년대 극도로 팽창하는 미국의 물류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높이 9m, 총 길이 21㎞의 산업전용 고가철로로 건설 당시 미화 20억 달러가 넘게 투입된 엄청난 산업기반 시설이었습니다. 굳이 고가철도를 세운 건 뉴욕의 독특한 교통사고사가 이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은 여러 문명시설이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단계적으로 수입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즉 차와 기차, 그리고 지하철이 역할을 명확히 해서 시스템과 같이 도입되었지만, 미국은 말과 마차, 그리고 기차, 전차, 지하철이 한데 섞여 뒤죽박죽 운영되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지나는데 뒤에는 마차와 자동차가 오고 있고, 이어서 기차가 그 뒤를 쫓는 마치 코미디 같은 풍경이 펼쳐지던 것이 100년 전 뉴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번한 사고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시의 기록 사진을 보면 말 탄 카우보이가 깃발을 흔들며 기차를 인도하는 사진이 있을 정도니 팽창하는 미국의 산업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류를 운영하기 위한 고가철도를 생각하게 된 건 그리 무리도 아닐 것입니다.

▶ 전성기 시절의 하이라인

▶ 개발전의 하이라인 시민 답사



▶ 하이라인 공원만들기 시민운동

특히, 뉴욕 서부 맨해튼의 허드슨 강은 오대호(五大湖)를 연결하는 이리운하(Erie Canal)로 인해 급속한 물류확대가 이루어졌고, 전쟁 이후에는 유럽과 영국과의 교역이 확대되어 뉴욕은 19세기 미국 최대 도시가 되었으며 그 심장은 바로 서부 맨해튼, 즉 하이라인 주변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곳 하이라인이 위치한 서부 맨해튼은 20세기 세계로 향하는 미국의 관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불십년(權不十年), 2차 대전 이후 증가하는 다양한 교통에 대한 요구로 평면교차가 없는 지금의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미국 사회는 급속히 자동차 중심의 도시, 사회,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1975년 미국은 Interstate Highway 시스템을 구축, 차 중심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1934년 하이라인에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이래, 1970년대를 기점으로 쇠락의 길을 걷다가 1980년을 마지막으로 하이라인에서 더는 기차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물류의 혁신을 위해 공장과 창고를 관통하는 높이 30ft의 철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등극복의 10년, 하이라인의 친구들(Friends of High Line)

하이라인은 50여 년간 화물철도의 역할을 하다가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1980년 폐선이 확정된 이후 2009년 공원의 형상으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폐선 이후 철도와 그 주변은 빠른 재개발의 요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가 공공개발로 공원화라는 이슈를 내놓을 때만 해도 뉴욕시의 입장에서 6ac에 이르는 사유지를, 그것도 맨해튼이라는 엄청난 밀도의 고부가 지역을 공원화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미국 건축가협회상을 받는 등 세계의 찬사를 받는 귀한 몸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10년간의 깊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극적인 화합의 드라마가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이라인의 친구들(Friends of High Line, FHL)' 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존재합니다. 하이라인의 친구들(FHL) 설립자는 첼시에 거주하던 두 아티스트인 조슈아 데이빗(Joshua David)과 로버트 해먼드(Robert Hammond)입니다(한 사람은 화가고, 한 사람은 작가입니다).

하이라인 구조물의 소유자는'CXS'라 불리던 철도회사이고, 하이라인 부지 소유자는 첼시 프로퍼티 오너스(Chelsea Property Owners, CPO) 라는 민간과 뉴욕 주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철도 인프라의 활용 및 용도에 대한 행정적 결정권은 미국 연방정부의 지상 교통 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 STB)에 있었습니다. 하이라인 폐선 후 지상권과 공중권의 개발 권한을 가진 두 주체는 엄청난 철거비용, 환경문제, 행정적 문제로 고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이라인을 두고 지역사회 또한 그들의 이해와 상충하는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로 하이라인은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하이라인의 친구들(FHL)이 결성, 공원화가 쟁점으로 주목, 나아가 그 가치에 대한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관심받기 시작하였습니다.

▶ 하이라인 풍경

하이라인의 친구들(FHL)은 사회적 이슈만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상하는 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뉴욕시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던 민간단체인 '공공공간을 위한 디자인 트러스트(Design Trust for Public Space, DT)'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Reclaiming the High Line』이라는 책을 출판하는 등 매우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시민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폐철도 시설 활용에 관한 문제는 물론 공원화를 위한 재정 문제 등 이해관계 그룹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현실적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특히 뉴욕이라는 곳은 지역의 문제를 협의하는 커뮤니티 문화가 남다릅니다. 지역주민의 담론과 참여가 이상할 정도로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뉴욕 사교계에 여론 조성과 전문가들의 응집을 유도할 만한 능력 있는 문화계 인사인 조슈아와 로버트 같은 아티스트들이 하이라인의 친구들(FHL)을 만들고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이라인의 친구들(FHL)은 하이라인의 공원화 계획에 대한 민간 주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공원 조성 후 따르게 되는 부동산 등 지역 가치상승 통계를 하이라인 공원 개발 상황에 적용한 후, 시에서 얻게 되는 세금 증가분을 하이라인 공원화에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하는 논리를 내세워 뉴욕시가 공원화 계획을 결심하도록 하였습니다.

▶ 하이라인파크 남단

하이라인(High Line)의 보이지 않는 디자인

하이라인의 기본구상과 설계 진행, 그리고 실행의 추진을 단순히 시민단체의 참여와 용역을 수행한 디자인 회사 정도의 일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디자인 사업의 이해를 넘어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프로세스의 지성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단순한 디자인 기술이 아닌 커뮤니티 디자인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이라인의 친구들(FHL)의 두 사람은 작가와 화가라는 독특한 개인 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이라인의 중요한 거버넌스로 정부 못지않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와 같았습니다. 이들의 독특한 이력은 새롭고 창조적인 커뮤니티 작업을 수행함에 충분했고 문화나 건축, 디자인, 예술에 대한 조예와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이들은 뉴욕시와 연방정부의 제안에 앞서 수많은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의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고 스스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구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물론 이면에는 지역사회에 깊은 애정과 높은 이해도가 작용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기본구상 과정에서 첫째, 지역사회에 대한 엄격하고도 권위 있는 대변과 진정성, 둘째, 단순한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향후 발전시켜나갈 장기적인 비전으로 하이라인을 브랜드화 하고자 한 것, 셋째, 많은 이들의 참여와 역량이 투입된 민간 기금 조성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엄청난 노력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총 공사비 중 약 30~40%의 자금을 하이라인의 친구들(FHL)이 충당했고, 최근까지 하이라인의 친구들(FHL)이 조성한 하이라인을 위한 기부금의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하이라인 수변 공간

설계에만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입

다음은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JCFO)'으로 대변되는 전문가 그룹의 역할이 있습니다. 2004년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JCFO는 설계에만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입하였습니다. 설계 초기 하이라인의 친구들(FHL)과의 공조를 통해 프랑스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ee)'를 배경 삼아 기본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1988년 파리의 버려진 고가철로를 산책로로 변화시킨 이 프로젝트는 '나무가 있는 산책로' 라는 뜻으로 생태, 환경, 재생을 통해 도시개발의 이슈를 제공한 사례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기에 하이라인이 그 영향을 받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팀은 단순히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ee)'를 벤치마킹 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텍처 (agri-tecture: agriculture와 architecture의 합성어)'라는 콘셉트를 지향하였는데 이는 '자생하는 자연, 그리고 도시 문명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라인의 성공에 있어서 이 설계팀의 중요한 역할은 매우 진지한 가교 역할을 자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개발, 보존, 복원이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멀리는 도시의 과거 흔적과 미래의 요구를 이어 역사 환경이 부족한 미국사회에 기여자로서... 그리고 이러한 대상지를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충실하게 철로의 흔적을 지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않게 실용적인 공간을 접목하는 지혜를 설계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노력인데, 사업 초기에 전문 사진작가를 동원해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고 스스로 자라난 도시생태의 흔적을 정성스럽고 진지하게 목록화 하며 이를 새로운 설계에 적용하는 진솔하고 겸손한 노력을 발휘해왔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개발자의 역할을 발휘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하이라인의 조경 식재는 폐선 30년간 자연이 스스로 철길을 치유하고 만들어 놓은 생명의 흔적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적용한 것으로 매우 시사성이 있는 성과물입니다.

▶ 하이라인 풍경

우여곡절이 많은 하이라인은 10년의 복잡한 여정을 마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토지나 개발권을 가진 민간의 이기적이고 배타적 행위가 전혀 없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나 전문가 그룹이 손쓸 틈도 없이 호텔이 생기는가 하면 아직도 3공구 착공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3공구 구간이 허드슨 강을 바라보는 레일 야드인 현재 뉴욕 지하철과 철도의 기지창 역할을 하는 광대한 부지와 접해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부지의 규모, 입지 등을 살피면 이 곳의 예상되는 개발 규모와 파급자본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공원의 연장을 이 자본 집단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최근 이 권역을 두고 'SAVE Design' 이라는 개념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이곳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인의 마지막 모습은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하이라인의 친구들(FHL)이 많은 기금을 모금해 왔고 더 이상 작은 지역의 비영리 시민단체가 아닌 엄청난 사회적 및 정치적 파워와 수많은 시민 후원자를 거느리는 슈퍼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에 걸쳐 진행한 사업은 단계별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간을 벌어주어 이 공원을 거닐다 보면 놀라운 소프트웨어를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하이라인의 친구들(FHL) 스태프는 작은 풀들 하나까지도 기록하며 토심이 얕아 말라죽기 쉬운 작은 초목을 이리저리 옮겨 심고, 곳곳에 기부자의 이름과 기록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이제는 관계하는 가치 있는 건물들과의 물리적 결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인을 거닐다 보면 약삭빠른 사업자들에 의해 원하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공간도 존재하고, 땅이 아니기에 나무가 자라지 못해 그림자가 없어 한낮은 뜨겁기도 합니다. 또 높은 시설이니 접근하는데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보행 약자의 접근성이 어렵기도 합니다. 많은 노력으로 이러한 약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철로의 보존과 역사적 풍광을 지킨다는 개념과 상충되어 다소 불편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콘크리트, 유리, 철제 등 산업재료만으로 이루어져 시각적 건조함이 존재하지만 버려진 철길을 치유하기 위해 날아든 새와 풀꽃, 그리고 작은 나무들이 그런 삭막함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하이라인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멋진 사진으로 보여준 발끝을 살짝 적시는 수변공간이나 세련된 블록과 벤치, 모던한 오아시스 음수대나 레일 따라 움직이는 눕는 벤치가 매력적이었지만, 직접 만난 하이라인의 진정한 매력은 30년간 버려진 철길에서 스스로 나고 자란 야생의 풀꽃과 들풀이 주는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개발 이전의 기록집을 보면 어쩌면 그 모습을 베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미련을 둘 것 같지 않은 버려진 산업공간을 이처럼 아름다운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노력과 전문가의 헌신, 정부의 지역 성찰에 대한 노력이라는 가치의 재발견이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도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저도 어쩔 수 없는 디자이너여서 개인적으로 허드슨 강을 배경으로 개발하지 않은 철길 위를 달려오는 그 당시의 기차 한 대 올려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이라인을 방문한 기억을 더듬으면 열심히 한 디자인도 아름다웠지만, 보이지 않는 노력의 디자인과 하지 않은 듯한 디자인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공공디자인의 힘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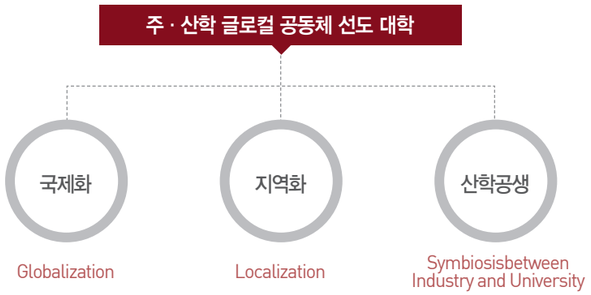
▶ 하이라인 풍경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국제 워크숍

선문대 건축사회환경학부_**이장범 교수**

선문대 비전 주(住) · 산(産) · 학(學) 글로컬과 캡스톤 디자인[1)]

선문대학교는 대학의 Vision으로 주 · 산 · 학 글로컬 공동체의 선도 대학으로 지역, 그리고 세계와 함께 한다. 주 · 산 · 학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지역 산업체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대학, 글로컬은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 세계와 교류하며, 지구촌속의 지역과 지역속의 세계 공존을 추구하며, 공동체는 지역화 시대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 · 산 · 학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자는 개념이다.



▶ 선문대학교의 전략 방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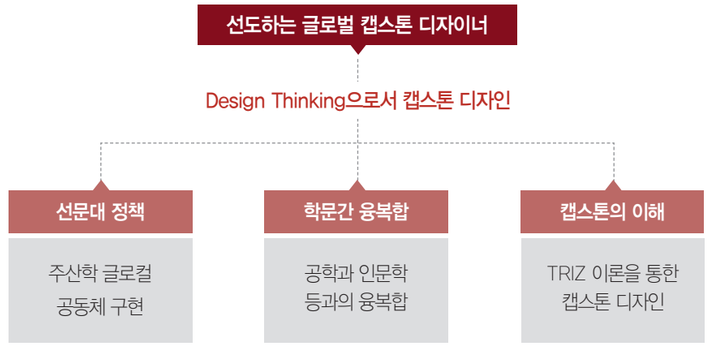
Globalization은 세계 우수한 인재들의 상호교류와 해외 인턴십 및 취업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적인 공동프로젝트를 개최하여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Localization은 지역사회에 대학 인프라를 공유하고, 다양한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주민 및 사회와 연대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설계 · 제작하도록 하는 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2) 선문대학교 홈페이지 ‘비전과 전략 방향’ 참조 http://lily.sunmoon.kr/Page/About/About03_01.aspx

국제화를 선도해 온 선문대는 정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첫해는 일본 사가대학과의 공동 워크숍, 대만 명전대학, 그리고 본 건축학 전공 주도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의 태평양대학(Pacific National University)과 공동으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을 추진하였다.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과 같은 맥락이며 모든 학문 분야가 융합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이다. 러시아 태평양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은 2015년과 2016년 두해에 걸쳐 연속적으로 시행되었다.



▶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의 목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진행 방법과 기본 이론

한국과 러시아의 학생으로 구성하여 친환경 건축을 포함한 사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부분의 내용에 관한 주제를 선정,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 개선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러시아의 TRIZ[3)] 이론을 바탕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TRIZ 이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선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TRIZ 이론과 친환경 설계에 대한 원론, 각론에 대해 숙지하도록 했고, 러시아에서는 TRIZ 관련 강의와 디자인 접근 방식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3) 창의적 문제해결이론(Teoriva Resheniva Izobretatelskikh Zadach)이라는 러시아 말에서 앞글자만 딴 것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근본 모순을 찾아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말함

▶ 국내에서의 캡스톤 디자인 워크숍(러시아 Vera I. Luchkova 교수 참석)

■ TRIZ 이론의 활용

TRIZ 이론은 러시아에서 나온 일종의 발명 이론으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단어 약자를 지칭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에게 TRIZ 이론은 불량률을 줄이거나 생산성 효율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현재 선문대 건축학과에서는 건축설계와 같은 과목에서 이미 이 이론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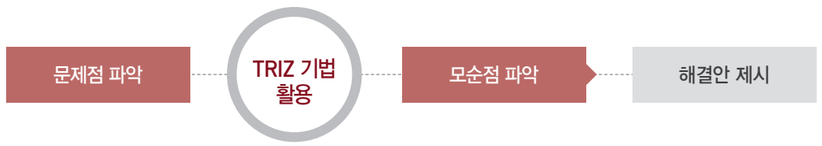
TRIZ 이론의 적용은 다음 그림과 같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TRIZ 기법으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에 접근하는데 따른 모순점을 찾아 이 모순을 해결하여 최종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 팀의 구성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에 공동 참여한 태평양대학은 선문대와 최초로 MOU를 체결한 대학으로 건축학과와 오랫동안 학술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팀의 구성은 선문대의 건축 전공과 러시아어 전공 학생을 주축으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하였고 이와 동수의 러시아 대학생이 각 팀원으로 공동 참여하였다. 언어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진행하고 러시아어 전공 학생과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통역을 통해 의사전달과 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태평양대학교에서는 건축학과 교수이며 건축대학장인 Vera. I. Luchikova 교수가 주관하여 진행했다.

- ТРИЗ(TRIZ, 트리즈) :
  Теория(째오리야-이론)
  Решения(레셰니야-해결)
  Изобретательских
  이조브레따쨀스키흐-발명 Задач(자다취-문제)
-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TRIZ)
  (발명(창의적) 문제해결 이론)
- 1946년부터 Genrich Saulovich Altshuller (1926~1998)와 동료, 제자들(1,500명 이상)에 의해 창안된 문제해결 기법
- 50년 이상 러시아, 미국, 유럽, 일본, 한국에서 개발, 사용 중
- 경영, 관리, 정치, 교육 등으로 응용영역 확장 중
- 최근 국내에서 실용트리즈로 많은 현업의 문제들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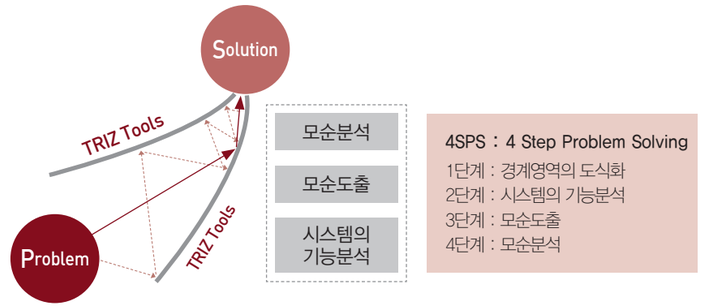
▶ TRIZ란 무엇인가?[4]



▶ 적용 해결의 프로세스

4) Kim'ms TRIZ(김호종), 발명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트리즈(TRIZ), 선문대학 특강교재, 2016. 8, 17쪽 인용

위의 큰 틀의 TRIZ 적용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문제를 파악하여 그림의 형상 등으로 도식화하고 TRIZ 이론을 적용 모순점을 도출해 낸다. 여기에서 생긴 모순점을 분석하여 모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최종적으로 적합한 해결방안이 도출된다는 원리이다.



▶ 현업에서 TRIZ 적용 해결하는 프로세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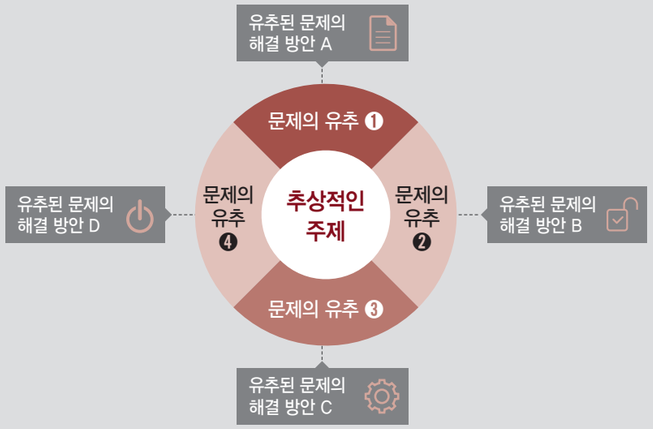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항상 기술적인 해결이 필요하므로 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요소를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나쁜 기능은 없애고 좋은 순기능만 살려 문제를 해결하는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문제와 해결책이라고 인지되는 것과의 경계에 있는 영역을 도식화 한 후 모순점을 찾아 분석,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 TRIZ 이론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에 적용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제의 선정

우리 생활 속에서 불편한 내용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요구되는 해결방안들이 많이 있다. 특히 최근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21C의 키워드인 친환경에 관련한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건축적으로 실현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주제를 대상으로 토론하여 문제점을 찾아낸 후, 각 팀원들간의 토론을 통해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유추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 Kim'ms TRIZ(김호종), 발명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트리즈(TRIZ), 선문대학 특강교재, 2016.8, 47쪽 인용



▶ 문제의 제기와 파생된 문제의 유추 해결 방안

■ 국제 워크숍의 진행

– 진행 일정

워크숍 이전에 실시한 사전 캠프에서는 국내의 TRIZ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과 관련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토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15년도에는 28명, 2016년도에는 32명의 한국 학생들이 태평양대학(Pacific National University)에서 5박 6일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현지 TRIZ 전문가의 참여와 평가

TRIZ의 본고장인 러시아에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을 함으로써 가장 큰 장점은 현지 TRIZ 전문가의 도움과 컨설팅을 받아가며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전문가인 Berdonosov 교수의 특강과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밀도 있는 지도와 내용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러시아 학생 4명, 한국 학생 4명의 총 8명으로 구성된 각 조는 상호간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며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TRIZ 이론의 전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했다. 실제 선정된 주요 주제는 패시브하우스, 눈을 이용한 냉방과 단열, 폐광부지의 활용, 로드킬(Road Kill)의 방지 등이었으며 다양한 방향의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 러시아에서 TRIZ 전문가인 Berdonosov 교수 특강

▶ 러시아 학생과 한국 학생의 공동 작업 과정

▶ 선문대 디자인 경진대회 출품한 최종 판넬 샘플

TRIZ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찾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TRIZ 이론 적용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었다. 이렇게 건축분야 전문가(교수, 건축가)와 TRIZ 전문가의 공동 지도를 통해 구체화 된 아이디어를 판넬과 모형 작업을 통해 각 팀별로 러시아 학생과 한국 학생이 번갈아 가며 발표, 전시하고 평가하였다.

■ 선문대 디자인 경진대회의 참여

러시아에서 토론한 주제는 선문대생이 주축이 되어 각 팀별로 선문대학교 2016년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및 캡스톤 디자인 옥션마켓에 참여하였다. 참여 결과 금상 등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는데, 향후 캡스톤 디자인에서 발굴된 주제와 해결 방안을 발전시켜 특허 출원 등 아이디어를 전향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본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시행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태평양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캡스톤 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캡스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접근 방식의 수월성과 훨씬 개선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이 배양된다.
- **다양한 학제간의 융복합 활성화**
  대학내 학제간의 융복합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보다 활발한 학생간, 교수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문간의 융복합화를 가능하게 한다.
- **외국학생과의 소통 능력 향상**
  외국학생과의 합동 캠프를 통해 세계인으로서 자아를 키우고 상호간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중요 언어로서 제2외국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 **외국대학과의 전공 교류 활성화**
  러시아 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있으나 학생 또는 교수 일방의 교류일 뿐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가 미진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문의 동반 상승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 출발점이 된다.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워크숍은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그리고 최고 전문가들의 지도와 작업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존,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 방법에 대한 사고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학생들이 주제 선정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극복하고 단합하여 공동의 최종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워크숍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Design Level up

: 컨설팅 사례

홍성의료원 모자보건센터 디자인
홍성의료원
22

보령시 종합체육관 신축 디자인
보령시
24

홍성군청사 외벽 색채계획
홍성군
26

보령시 한내로 디자인거리 조성
보령시
28

당진시 톨게이트 디자인
당진시
30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용차량 디자인
논산시
32

홍성의료원 모자보건센터 디자인

▶ 사업유형 : 공공건축물

▶ 신청기관 : 홍성의료원 관리부

▶ 자문위원 : 이종세 교수(건양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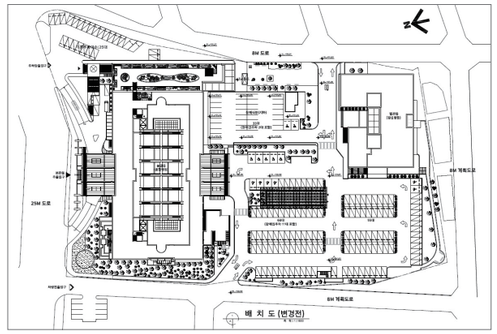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기존 본관 내에 위치한 산부인과 병동의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실내환경을 모자보건센터로 새롭게 증축함으로써 모자보건센터만의 독립되고 차별화 된 홀 인테리어 디자인이 필요함
- 기존 산부인과 대기홀은 외래진료와 병동부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기홀을 독립시켜 산모 환자들을 위한 쾌적하고 정적인 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함
- 소아과 진료부와 병실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실내인테리어 조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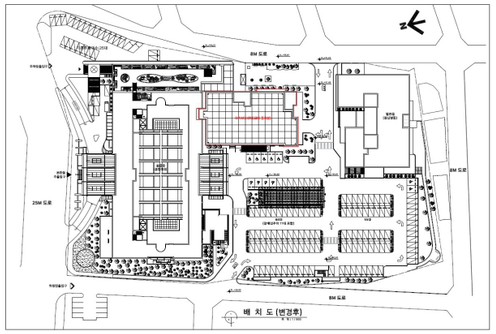
▶ 디자인 적용

컨설팅 주요 내용

- 홍성의료원 신축 건물은 서쪽을 정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자연채광 유입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투명성과 커튼월의 세련된 입면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을 최대한 내부로 유입할 필요가 있음
- 자연친화적 마감재와 자연 요소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한편 건축입면에 다양한 조형적 장식과 밝은 명도의 포인트 패턴은 오히려 조잡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을 권장함
- 내부 디자인 역시 주거환경과 같은 아늑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을 충분히 유입하고, 색채계획에 있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낮은 채도와 분명하고 시인성이 높은 사인 등 컬러 배치에 따른 공간분류가 필요함



▶ 변경 전



▶ 변경 후

▶ 디자인 적용(내부)

보령시 종합체육관 신축 디자인

▶ 사업유형 : 공공건축물

▶ 신청기관 : 보령시 문화공보실

▶ 자문위원 : 김연준 교수(목원대학교), 김진형 교수(청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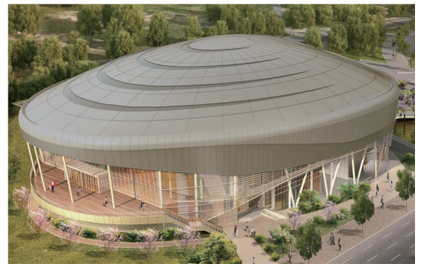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건축 설계 원안은 지붕면과 단차를 갖는 입체적인 초승달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음
- 입체적인 패턴을 살리기 위해서는 패턴부와 지붕 접합부에 단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 흐름에 따른 방수 발량의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패턴의 표현은 동일 재료의 마감에 색채의 차별화로 구현해야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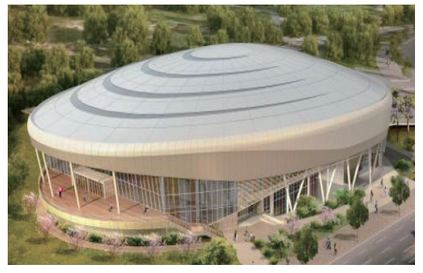
▶ 디자인 적용 1

컨설팅 주요 내용

- 보령 종합체육관은 최근 트렌드에 따른 비정형 유선형 외관 디자인으로 색채는 무채색이 적합하며, 넓은 면적에 적용하면 샘플에서 제시되는 색보다 밝아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안을 제시하였음
- '디자인 시안 1'은 지붕과 주 벽면 알루미늄 쉬트, 커튼월 프레임을 그레이 계열의 유사조화 배색을 적용하고, 유리 색상을 투명으로 제시하였음
- '디자인 시안 2'는 지붕을 그레이 계열, 주 벽면을 펄이 들어간 샴페인 골드색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커튼월 프레임은 화이트, 유리는 파란색으로 제시하였음
- 본 대상지는 규모가 작아 실내에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톤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외관의 포인트 적용 색채를 실내에도 적용하여 색의 사용을 최소화 하였음



▶ 외관 디자인 시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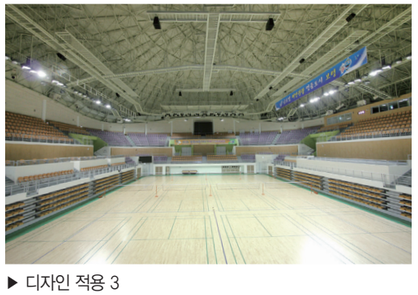


▶ 외관 디자인 시안 2

대상		색채
실내 관중석 및 바닥 색채	관중석 바닥	N6.0
	1층 객석 중 박스석	7.5YR 7/10
	1층 객석	10PB 4/6
	2층 객석	5R 3/6
	실내 출입구	7.5YR 7/10
외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5R 3/6
기둥		조명 설치

▶ 색채팔레트

▶ 디자인 적용 2



▶ 디자인 적용 3

홍성군청사 외벽 색채계획

▶ 사업유형 : 공공건축물

▶ 신청기관 : 홍성군 재무과

▶ 자문위원 : 김진형 교수(청운대학교)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대상 건축물은 홍성군청 본관을 중심으로 의회와 종합민원실, 그리고 3동의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축물의 외부 마감은 모두 도장 마감이며, 석재와 금속 같은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지 않아서 매우 단조로운 느낌을 주고 있음
- 단조로운 표피를 각 건물의 색채를 달리하여 다양한 색채로 도색하여 다소 복잡하고 어지러운 인상을 줌
- 현재 사인물이 계획성 없이 부착되어 있어 외관 색채의 무질서와 함께 군 청사 이미지를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게 만들고 있음
- 청사 뒤뜰의 안회당은 군청 전면 색채와 사인물의 복잡하고 무질서한 인상과는 반대로 충절의 고장 홍성의 이미지와 홍성군청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음
- 군의회의 하늘색 도색은 주변 건축물 색상과 한난대비가 커서 조화를 잃고 있으며 자체 색채만 놓고 보아도 그리 좋은 색이 아님
- 도색과 더불어 각 건물 주요 사인물 교체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디자인 적용

컨설팅 주요 내용

- 각각 조금씩 다른 색상을 가진 건축물 6개 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홍주아문과 안회당 그리고 뒤뜰의 전통 건축 공간의 이미지와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하고자 함
- 주조색은 의회, 본관, 종합민원실+제1별관, 그리고 별관 2동과 별관 3동의 4개동을 4그룹으로 나누어 색채를 선정함
- 강조색은 안회당 소나무 기둥에서 추출한 색채 모티브를 적용함
- 의회사무동은 군청 본관 및 부속 건물과 차별화되는 뉴트럴 그레이 계열 또는 약한 블루 계열의 그레이로 구성함
- 안회당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주조색을 선택하여 제시함

▶ 색채팔레트

대상	색상	팔레트
본관	- 1안 : 주조색 0.1Y 8.8/1.3, 강조색 5.3YR 4.3/2.3	
	- 2안 : 주조색 4.0Y 9.1/0.5, 강조색 9.5R 4.7/5.8	
의회	- 1안 : 주조색 3.5P 6.9/1.3, 강조색 3.1P 5.5/1.0	
	- 2안 : 주조색 3.6PB 8.0/2.3, 강조색 4.7PB 5.4/1.1	
종합 민원실	- 1안 : 주조색 2.3YR 9.2/0.8, 강조색 9.5R 4.7/5.8	
	- 2안 : 주조색 2.8YR 8.6/1.2, 강조색 1.5YR 4.8/0.9	
별관	- 1안 : 주조색 2.8YR 8.6/1.2, 강조색 1.5YR 4.8/0.9	
	- 2안 : 주조색 2.8YR 8.6/1.2, 강조색 5.3YR 4.3/2.3	

▶ 적용전(군의회)

▶ 적용전(종합민원실)

보령시 한내로 디자인거리 조성

▶ 사업유형 : 공공공간

▶ 신청기관 : 보령시 도시과

▶ 자문위원 : 이동석 교수(공주대학교), 김충식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혜은 전임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현재 대상지는 공공시설물의 통일성 결여 및 노후화, 방치된 사유 공간 등이 경관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가로수인 감나무의 수령이 어려 녹지가 부족하고, 보행자가 쉴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이 전무한 상태임
- 또한 보행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주차와 노면주차가 보행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가로경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

▶ 볼라드 통일화 및 경관저해요소 가림시설 설치

▶ 보도블럭 교체

▶ 선형녹지조성 및 사유공간과의 경계 구분

▶ 쉼터 설치

컨설팅 주요 내용

-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 하단부분과 감나무 사이에 소관목을 식재하여 보행로를 따라 선형녹지를 조성하여 입체적이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 보행공간을 확대하여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도블럭을 친환경 재료로 교체하여 보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주도록 함
- 보행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볼라드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나, 대상지 특성상 도로 또는 보행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설치된 볼라드의 디자인을 통일시켜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일괄 교체하도록 함
- 차량통행이 많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라드는 높이 700㎜ 이상의 탄성 볼라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대상지내에 보행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쉼터 등 보행자를 위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 보행로에 접해있는 개인 텃밭 및 녹지, 주차장 등이 경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소관목 식재 또는 시설물을 활용한 차폐 등 부분 차폐 방법으로 보행로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관상 보기 좋게 하도록 함
- 대상지내의 교통시설 안내표지판,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은 노후화되어 경관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며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발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보령시 발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을 권장함

▶ 현황사진 1

▶ 현황사진 2

당진시 톨게이트 디자인

▶ 사업유형 : 공공시설물

▶ 신청기관 : 당진시

▶ 자문위원 : 오병찬 책임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전주시, 경주시 등 지자체가 톨게이트 디자인을 지역 알리기 방법으로 활용 중이며, 당진시 또한, 당진시만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톨게이트 디자인 계획을 추진중임
- 당진시의 관문인 톨게이트 디자인 특화를 통해 당진시에 대한 인상을 깊게 남기고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함

▶ 시안 1

▶ 현황사진

컨설팅 주요 내용

- 당진시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의 매뉴얼에 의한 설계로 당진시의 성격이나 지역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임
- 당진시의 기존 톨게이트 구조물 위에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구조적 파악이 중요함
- 당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제시함

▶ 시안 2

▶ 시안 3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용차량 디자인

▶ 사업유형 : 공공매체

▶ 신청기관 : 논산시 도시주택과 디자인총괄팀

▶ 자문위원 : 서유선 교수(남서울대학교), 김성희 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청소년상담 및 복지업무 관련 출장 시 사용되는 관용차량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차량 외관 디자인을 지원함

▶ 디자인 적용

컨설팅 주요 내용

- 1차원적인 기관의 명칭 가시성을 뛰어 넘어, 기관이 갖는 역할과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모티브(주제) 그래픽 아트웍과 컬러 등을 선정하여, 디자인의 심미성 · 의미성 · 가시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차량의 색상이 은색이므로 색상의 시간적 · 공간적 차이를 고려하여, 디자인이 적용 될 부분의 해당 면 전체를 차량 광고용 솔벤트 계열의 실사 출력 랩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안1

Type 1

Type 2

Type 3

시안2

Type 1

Type 2

Type 3

Design Focus : 센터 정책연구

충남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36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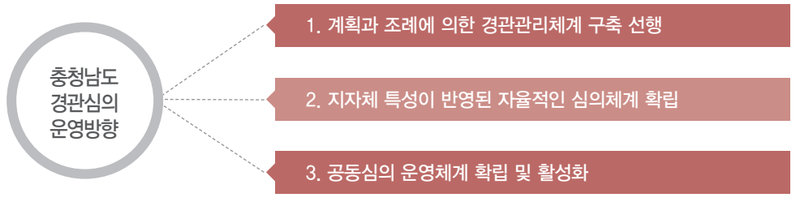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가이드라인
- 현수막 활용사례 -
40

충남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2013년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심의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심의 운영 절차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심의 기준의 객관성 부족으로 시 · 군에서는 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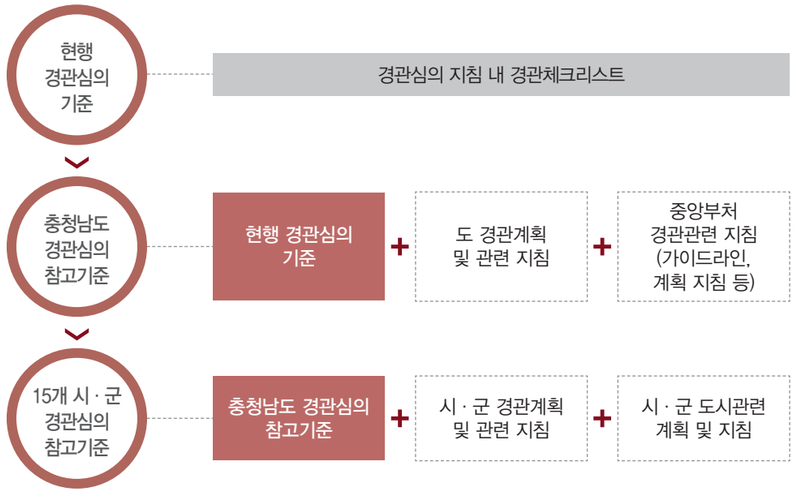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관관리 실행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주요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관심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경관계획과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되고, 시 · 군 여건에 부합하는 심의대상 선정 등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심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 심의와의 공동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충남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심의대상 관련 중앙정부 지침 분석을 통해 도 차원의 경관심의 참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도 및 시 · 군 경관심의 시 현행 경관체크리스트의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시 · 군의 특성이 반영된 경관심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 · 군의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경관심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 · 군 경관관리를 위한 단계별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경관관리부서 설치 및 인력 확보, 조례제정과 계획 수립이 시급하며 둘째, 이에 기반한 심의운영체계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공동심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심의에 의한 건축, 도시, 경관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관관리의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충남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의 부재에 따른 디자인 통합과 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에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그 후속으로서 사업 완료 후 사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사업의 효과, 유지관리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론고찰 및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진단개념 구축 및 방향 설정, 충남 공공디자인 사업 동향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충남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도출, 진단 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충남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구성 및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평가개념)	소분류 (세부항목)
사업 추진 지표	목적	정합성	• 목표 및 기본방향과의 정합성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관련 법 제도) • 계획 및 설계내용과의 정합성
		정체성	• 지역의 고유성 반영 • 지역의 역사 · 문화 · 사회 · 경제 · 지리적 특성 반영
	방법	합리성	• 예산계획(규모 및 배분)의 합리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전문가 및 디자인 전담조직의 의견 반영
		참여성	•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효과	연계성	• 타 사업과의 연관성
		실효성	• 지역 활성화에 기여 (이용객 증가, 상권 활성화, 인지도 상승 등) • 기존 문제점 개선 (주민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 향상 등)
사업 성과물 지표	가치 및 목표 달성	공공성	• 지역사회 공헌 • 일반적 · 대중적 • 접근의 편의
		디자인	• 디자인 요소들 간의 조화 • 주변환경과의 조화 • 기능 및 형태의 통합 · 일관성
	이용 및 활성화	사용성	• 용도 및 기능의 적절성 • 효율적 이용 • 이용 수요 고려
		공동체성	•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사회 교류 • 주민참여
	유지 관리	안전성	• 각종 위험 및 사고에 대한 대비 • 방범을 위한 물리적 환경설계
		지속 가능성	• 자연친화적 재료 •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 내구성 및 경제성

▶ 시범운영 기간의 사후진단 시스템 절차

1 단계	**사후진단지표 시스템 게시** • 공모사업 계획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또는 업체 선정 시 사후진단 시스템 내용 게시	충남도 공공디자인팀 사업 실무 담당자
2 단계	**사업 추진** • 사후진단 시스템 고려하여 진행 • 사업 추진 과정 중 변경사항 등 DB구축	사업 실무 담당자
3 단계	**사후진단 의뢰** • 진단에 필요한 서류 준비 • 1차 진단 : 사업 완료 직후 ~ 완료 후 1년 이내 • 2차 진단 : 사업 완료 후 3년~5년	
4 단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 파악** • 구비 서류 검토(사업계획서, 도면 등)	충남공공디자인센터
5 단계	**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 내용 및 규모에 적합한 분야와 인원 결정(인원은 1명~3명) • 사전진단 시 참여 평가위원 포함(사전진단 과정을 진행한 사업의 경우)	
6 단계	**협의** • 사업 담당 실무자의 사업 설명 • 진단지표 설정(지표 선택 및 추가) • 진단지표 가중치 설정(사업성과물지표에 해당)	사업 실무 담당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남도 공공디자인팀 (공모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
7 단계	**진단 실시** • 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장실사에 의해 진단(실무 담당자의 인터뷰 병행) • 평가위원 각자 진단지에 표기	
8 단계	**결과 정리 및 환류** • 평가위원이 작성한 진단결과 정리 • 현 상태 유지 : 유지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수정 및 보완 : 가능한 부분 수정 및 보완 / 대책 마련 / 타 유사사업 추진 시 참고	사업 실무 담당자 충남도 공공디자인팀 (공모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
9 단계	**모니터링** • 진단 결과 반영 여부 확인	사업 실무 담당자 충남도 공공디자인팀 (공모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
10 단계	**DB구축** • 진단지표 활용 사례를 타 유사사업 추진 시 참고	사업 실무 담당자 충남도 공공디자인팀 (공모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가이드라인
- 현수막 활용사례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변 경관을 배려하지 않은 디자인과 과다한 정보로 주변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시 · 군 및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된 디자인 그래픽으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현수막 및 지면을 이용한 홍보를 체계화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 활용 및 방법을 제안하고 보급하고자 한다.

기본목표 및 디자인 방향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비전

"공공디자인으로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 생활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 지역을 살리는 디자인
- 공유와 공존을 위한 디자인

반영

충청남도 홍보매체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기능성
- 공공성
- 심미성

공주시 적용사례(공산성 콘셉트 적용)

• 가로형

• 세로형

• 무대 및 벽면형

아산시 적용사례(외암민속마을 콘셉트 적용)

• 가로형

• 세로형

• 무대 및 벽면형

Design Team : 당진시

치유와 사색의 '버그내순례길'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건축과_도시디자인팀

Design Team : 당진시

치유와 사색의 '버그내순례길'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당진시 건축과_**도시디자인팀**

당진시 도시디자인팀은 팀의 구호를 '하하호호'라고 짓고, 구호처럼 함께 웃으며 즐겁게 업무를 하고 있다.

우리팀은 '버그내순례길'의 아름다운 경관을 소개하여 2016년 7월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수상에 이어, 2016년 10월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국내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 서초구 '양재천'과 함께 당진시 '버그내순례길' 3곳이 중국 은천시로 초청 받아 수상의 기쁨을 누리고 왔다.

▶ 거점공간별 사업 특성 : Sinri Shrine

역사적 장소에 대한 공간을 시각화 하여, 카타콤바를 모티브로
지하 공간에 다블뤼주교기념관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녹색 언덕으로 조성

▶ 거점공간별 사업 특성 : 신리성지

▶ 당진시 버그내순례길 2016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 Space of pilgrims's rest

▶ 파랑새상 : 신리성지

▶ 사인물

버그내순례길은 삽교천의 옛 지명인 버그내에서 유래된 명칭이며, 한국 천주교 탄압기에 삽교천 수계를 중심으로 천주교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이 지역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우촌들이 형성되었고,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된다. 최근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당진시에서는 주변의 농촌경관, 문화유적, 성지들을 연결하는 버그내 순례길을 조성하였다. 순례길은 한국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솔뫼성지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카타콤바'라 불리우는 신리성지까지 13.3㎞로 도보 4시간이 소요되는 여정이다. 드넓은 내포들판의 농촌풍경과 조화롭게 연계하였고, 경관조망대를 통해 위계와 리듬감 있는 공간 조성으로 한국적 농촌풍경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 신리성지는 순교의 역사적 사실을 공간으로 승화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버그내순례길은 2014 아시아청년대회 행사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이후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순례길 주변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예술마을로 탈바꿈되고 있다. 200여년 전부터 신앙선조들이 걸었던 길, 지금도 치유와 성찰을 위해 걷고 있는 길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자생적 경관과 문화를 만들어 가며 진화하고 있는 길이다.

국내
정책·제도 동향

중앙부처
48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55

중앙부처 정책 · 제도 동향

건축 및 도시

행복주택, 신혼부부가 살기에 더 좋아 진다

2016. 09. 05.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행복주택기획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 9월 6일(화)부터 행정예고(20일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 :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는 세대당 1대 이상, 사회초년생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심지는 세대당 0.5대, 그 외의 지역은 0.7대,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은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 160㎡)의 주차장을 공급, ②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기준 개선 : 신혼부부는 세대당 0.33명, 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당 0.1명, 그 외는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개정 기준 적용 시 신혼부부 특화단지 내 어린이집은 1.7배 이상 확대, 대학생 특화단지는 대학생을 위한 특화시설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 안전모니터링 시정조치 요구

2016. 09. 05.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적정설계와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15.6.~'16.8.) 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건축 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확대하였다. ② 구조설계는 600건 중 77건이 부적합(12.8%), 샌드위치 패널은 78개 현장 중 38개 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부적합률이 작년보다 37%(89.8%→52.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③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 현장, 철근은 70개 현장 중 4개 현장,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지시하였고, 위법 건축물 관계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앞으로 추진할 '3차 건축안전모니터링('16.8.~'17.8.)'은 2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16.8.)하여 공사현장 점검과 제조 현장 및 유통 장소까지 확대하여 800건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은 물론 책임감을 높이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부실설계 및 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을 위해 기업연합군이 나선다

2016. 09. 07.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9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건축분야 신성장 동력인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를 출범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산업분야 간 융 · 복합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신시장 창출 및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구성되었다. 기술 · 정책 · 금융 등 분야별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한 융합 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개선 뿐 아니라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융합 얼라이언스는 건설기술, 신재생 · 에너지, 정보기술(IT) · 설비, 정책 · 금융 등 4가지 분과로 구성되었다. 발족식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분과별 활동과 위원회 지원을 통하여 분야 · 업종 내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은 물론 타 분야의 협업 및 융합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리폼

2016. 09. 19.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정책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16.9.19.).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면서도, 주거빈곤계층에게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전국 6개 지역에 820세대의 직장여성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약 1,610세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과 LH공사는 직장여성근로자 주거안정에 우선하고자 직장여성아파트 현 입주세대인 820세대를 직장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되면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공시설이 함께 건설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주거여건은 물론, 주변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2016. 09. 20.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 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 1월에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 완화). ③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는 ① 「건축법」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②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받는다. ③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다. ④ 건축물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도 건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있다. ①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가 1.5m(경사지붕 1.8m)이하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②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 제작 · 배포

2016. 10. 04.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는 입주민들의 하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물에는 하자 신청 시 진행 절차,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이 있으며, 소책자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련 관계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6.8.12. 시행)에 따라 변화된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 요령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등)을 통해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과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 요령" 소책자는 국토부 하자 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16.10.5.)에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6. 10. 05.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여가정책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0월 4일(화) 제44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일) 공포된 「문화기본법(법률 제14203호)」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가 있는 날'에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지자체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6. 10. 06.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6.10.7.~11.18.)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 ② 화장실 급 · 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 마련 : 화장실 층하배관 구조인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 의무화 등이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2016. 10. 12.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 · 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6.10.~11.18, 40일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 ②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 :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등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K-Tour Best 10)" 키운다
2016. 10. 19.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돌리고, 오래 만족스럽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K-Tour Best 10)'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코스'를 선정하여 집중 발전시킴으로써 국내외 관광 수요를 다변화하고 지역관광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별 '점' 단위 지원에서 관광코스를 잇는 '선' 단위 연계로 전환 : 현존하는 관광자원들을 관광객 동선에 따라 연결하고 향상시킨다. ②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관광요소별 종합 패키지 지원: 관광 수요자 관점에서 관광요소별 부족분에 대한 맞춤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③ 기존의 전형적 관광자원에 지역의 역사 · 문화 · 이야기 등 인문자원 융합 : 기존의 전형적 관광자원에 무형의 문화콘텐츠를 복합적으로 보강한다. ④ 범부처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 :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15년 하루 평균 328.1불을 지출했던 외래관광객이 1일씩 더 체류한다면 약 43억 4천만불의 추가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
2016. 11. 16.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30~40% → 50~60%)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20일간('16.11.17~12.6) 행정예고 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 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생산 · 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 ②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 1차 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이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 ③ 기타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40%→60%)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 :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264만원(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이번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은 2016년 12월 공포 후,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경관 및 공공공간

세계에서 가장 큰 세종청사 옥상정원, 기네스북 등재
2016. 10. 17. | 행정자치부 | 시설총괄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옥상정원(Largest rooftop garden)"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정부세종청사는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완공되었다. 55만㎡의 대지에 연면적 63만㎡의 건축물을 길게 늘어선 연도형(連道形)으로 건립하고, 길게 늘어선 15개 동의 건물을 다리(Bridge)로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수평적 건축물로 완성한 후, 이곳 옥상에 길이 3.6㎞, 면적 약 7만 9천㎡의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을 조성하였다. 이 옥상정원은 2016년 2월 29일 국내기록으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사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2016년 5월 25일). 이를 기념하는 표지석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옥상정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기네스북 등재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을 관람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상징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세종청사에 세계적 옥상정원이 존재한다는 상징성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되어 행정 한류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공공기관 자투리 공간, 창업공간으로 재탄생
2016. 11. 18. | 행정자치부 | 협업행정과

최근 공공기관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옥 내 자투리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정자치부의 "창업샘터"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창업샘터"란 공공기관의 공간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행정자치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선도 사례를 참고해 2016년 6월 표준 모델을 수립하였고, 창업 공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확산에 나섰으며, LH는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에 작은 부담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LH 나눔플러스 창업샘터"를 구축하였다. 복사기, 전화기 등 사무용 비품과 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이 갖추어져 있으며 인터넷 환경, 사무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청년 창업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1년차 1천만 원, 2년차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교육과 현장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창업샘터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만들기

'지역 맞춤형 국비지원'으로 낙후지역 성장 촉진
2016. 09. 01.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성장촉진지역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들 중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서면 · 현장평가, 최종 사업발표회 등을 거쳐 최종 22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 사업 대상은 하드웨어(H/W)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 산업,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S/W)적 전략을 융 · 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예산 ·

세제지원, 지역개발지원법상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201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 지역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사업과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등을 통해 교통약자(노약자 등)의 쇼핑, 의료, 문화 등 생활 복지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사 업 명	주요 내용
경북 양양군	영양 국제 밤하늘 보호 공원 별 및 생태 관광 명품화 사업	영양의 생태 자원인 밤하늘을 활용하여 관광화
경남 남해군	동창선다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	폐교를 활용한 주민 소득창출
전남 고흥군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을 통한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	고흥만 방조제 일대에 경관 정비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
전북 장수군	레드 푸드 융복합 센터 조성 사업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 축제 거점의 사계절 활용 방안	인삼 관련 특화거리 및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 옥천군	꿈엔들~ 향수(鄕愁) 누리 조성 사업	역사 · 문화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강원 영월군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 사업	기존 라디오스타 박물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 공원 조성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20개 우수마을과 10개 우수 시 · 군/읍 · 면 선정

2016. 09. 01.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 · 경연하는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였다('16.8.).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소득 · 체험 등 4개 분야에서 20개 우수마을과 2개 분야에서 10개 시 · 군/읍 · 면을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장관은 콘테스트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농촌을 재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참가자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해달라고 했다.

구분	선정 마을 및 시 · 군 / 읍 · 면
우수마을	합천군 양떡메마을(소득 · 체험)
	태안군 만대마을(문화 · 복지)
	하동군 매계마을(경관 · 환경)
	서귀포시 신도2리(농촌운동)
시 · 군 경연 (마을만들기)	경남 거창군
읍 · 면 경연 (농촌운동)	서귀포시 안덕면

감천문화마을, '2016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

2016. 09. 21. |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영예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작으로 '감천문화마을'을 선정했다. 이 행사는 일상생활 공간에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주변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다. '감천문화마을'은 공간의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써, 최근에는 공 · 폐가를 예술창작공간으로 새단장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시작된 하나의 작은 사업이 마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고취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수상작으로는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전남 해남군 '우수영 문화마을'과 거리마당상(장관상) 부산 동구 '초량이바구길', 누리쉼터상(장관상)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철새평화타운', 두레나눔상(장관상) 부산 사상구 '한내마을 복이 있는 카페 & 문화교실'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최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 선정!

2016. 10. 24.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설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453개소를 대상으로 경관 · 서비스(11개 항목), 체험(20개 항목), 숙박(22개 항목), 음식(16개 항목)의 4개 부문별로 평가하고 등급(1~3등급, 등외)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4개 부분(경관 ·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모두 1등급을 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28개소가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등급 결정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통해 자발적 서비스 품질개선을 유도하여 농촌체험관광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등급을 받은 마을 '으뜸촌(2015년도 8개 마을, 2016년도 28개 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우리나라 좋은마을(웰촌: 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합니다

2016. 11. 08. | 행정자치부 | 국민참여정책과

행정자치부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우수 성과들을 소개하는 특별관을 'DK(디자인코리아) 2016' 행사에서 운영했다. 이 행사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 전 단계에 국민이 참여해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우수사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서울특별시 중구'는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참여해 쇠락해가는 골목을 역사 · 예술을 담은 명품골목길로 재탄생시킨 과정과 결과물을 전시하였고, '농촌진흥청'은 침체된 지역 내 버섯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버섯산업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과정을 보여주었다. '인천광역시'는 휴식 공간, 이동형 육아보호 서비스 제공 등 노후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과정과 결과를 전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국민참여정책의 핵심인 국민디자인단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17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도 수산물 명소 '남광주 시장', 야시장으로 개장

2016. 11. 17. | 행정자치부 | 지역경제과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이 새단장하여 개장하였다. 남광주 시장은 남광주역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곳으로 과거 남도 지역의 수산물 집결지로 명성을 날리던 곳이다. 그러다가 2000년 철도역의 시외 이전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줄며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사연을 가진 남광주 시장이 야시장으로 문을 열며 과거의 영광 재현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은 일곱 번째로 문을 여는 곳이다. 야시장 매대운영자는 75%가 청년계층 상인들로 젊은이들의 열정과 활기가 쇠퇴하는 시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육성 사업은 단순한 전통시장 야간 영업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경제의 신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5개 야시장의 운영 성과 분석결과, 하루 방문객 수는 1만 7천명, 매출은 한달 8억원, 일자리 창출도 일 355명에 달하며, 야시장 운영으로 전통시장 기존 상인들의 매출액도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개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시내 자전거도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2016. 09. 07. |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

행정자치부는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생활형 자전거 이용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전국 자전거도로가 대부분(76%)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고 버스승강장, 가로수, 전봇대, 상품진열대 등 방해물이 많아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10개소를 선정하였다. 정비대상은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사고위험도로, 통행불편도로 등이며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 10개소에는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겸용도로 정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유형별 성공사례를 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전국 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정비 등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 09. 07. | 산업통상자원부 | 디자인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고 제2016-460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주요내용은 2016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①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95호, '15.12.22.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운영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 ② 가.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및 조정방법 등을 정함 (안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9 신설), 나. 법에 설립근거가 마련된 지역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 ③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디자인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이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 안전시설물, 미국 수출 길 '활짝'

2016. 10. 31.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실무협의와 한미도로협력회의('16.9.)를 거쳐 2016년 10월에 미연방도로청(FHWA)이 도로 전문 실험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을 미국 공식 안전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가드레일,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우리 도로안전 제품을 미국 도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안전시설물 업체들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국이 인정하는 공식 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했지만,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상당한 실험 비용과 수개월의 소요기간 감소 및 국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실험을 수행함에 따라 미국 인증을 다수 획득하여 상당한 수출 진작 효과가 예상된다. 아시아에서 미국 공식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연구원이 유일하므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인증기관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모델을 발굴하여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 틈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표시등에서도 상업용 광고 본다

2016. 11. 15. |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종사자,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는 표준모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택시업계, 중소기업, 교통안전공단, 빛 공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운영 사업에 대한 변경 고시를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규격(L110㎝×H46㎝×W30㎝ 이내), ② 재질(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③ 부착(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④ 화면 지속 · 전환시간(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등 설치기준이 보다 완화 · 세분화됐다. 다만,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 · 야간 시간대 디지털 광고물의 휘도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대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향후 사업규모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남도 및 15개 시 · 군 정책 · 제도 동향

충청남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 수상

2016. 11. 25. | 충청남도 |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충청남도가 2016년 11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① 디자인 경영 전략을 수립해 성과를 거두거나 ② 국가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기업, 디자인을 활용해 발전을 일구거나 ③ 공동체적 디자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우리나라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디자인대상에서 충청남도는 디자인 경영과 디자인 개발, 인재 양성, 디자인 정책 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5년 10월 충청남도와 15개 시 · 군 간 '공공디자인 통합지원체계 협약'을 체결하고, 시 · 군의 열악한 디자인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사전 디자인 컨설팅' 확대, 충청남도 교육청과의 '학교 디자인 컨설팅' 협업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청남도는 범정부적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되는 등 공공디자인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며 앞으로도 협업디자인과 통합적 디자인 관점으로 '아름다운 디자인 충남'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건축 및 도시

'답사문화 발전' 함께 힘 모은다

2016. 09. 25. | 충청남도 |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안희정 지사는 지난 24일 작가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문화원에서 답사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충청남도와 부여군, 유홍준 교수는 도민 문화 향유권 확산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와 부여군은 문화유산 및 예술작품 상설 전시와 답사문화 연구에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유홍준 교수는 상설 전시 및 연구 공간 조성 시기에 맞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 · 예술 작품을 부여군에 추가 기증키로 했다. 부여문화원 전시실에서 연말까지 진행될 '유홍준 교수 소장유물 전시회'는 백제 및 부여 관련 그림 · 글씨 · 탁본, 부여 출신 화가 · 서예가 · 명사들의 작품, 백제시대 비문 · 전돌 탁본, 백범 김구 · 김옥균 · 이준 열사 등 개화기~근현대 인사들의 서화 작품, 유홍준 교수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관련 작품 등 249점이 전시된다.

서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제안 공모사업 선정

2016. 09. 01. | 서천군

서천군은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모한 국토교통부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마을계획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낙후된 지역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금번 주택건설지구는 장항읍에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공급을 위해 진행된다. 서천군은

앞으로 2016년 말까지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사업 승인절차를 거쳐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혼합된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청양군, 120세대 공공임대주택 유치 확정

2016. 09. 01. | 청양군 | 기획감사실

청양군이 인구증가와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모한 국토교통부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됐다. 청양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120세대 160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유치 확정을 최종 통보('16.8.31.)받았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앞으로 12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 귀농귀촌인 뿐 아니라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젊은 세대, 새터민 등 서민들의 주거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은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21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설계 및 토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전 예고로 건축위반건수 감소

2016. 09. 02. | 천안시 | 서북구 도시건축과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2016년 상반기 불당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공사 중인 건축물 11건, 사용승인건축물 10건 등 21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사 중인 벽체의 구조변경 등 2건과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 및 대수선(가구증설)한 2건에 대하여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 감리자에게 시정명령하고, 시공 중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서북구는 불법건축행위적발 시 행정처분절차 등을 안내하여 이번 현장 점검 결과에서는 불법 건축행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앞으로도 불당신도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천안 · 아산중추도시생활권 우수생활권 선정

2016. 09. 07.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와 아산시는 현재 '천안 · 아산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여 양시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생활권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위에서는 전국 63곳의 생활권 중 그동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천안 · 아산중추도시생활권'을 우수생활권으로 선정했다. 천안과 아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배경은 지난 2014년 9월 23일 '천안 · 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를 발족 후 현재까지 4차례 정기회의를 거쳐 양시 간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천안 · 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등 총22건의 안건에 합의하고 합의안건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양시의 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해 천안 · 아산중추도시생활권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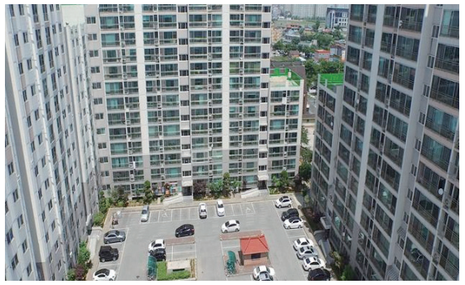
서천군,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 개관식

2016. 09. 21. | 서천군

서천군은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이 전래된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에서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 건립 개관식('16.09.)을 가졌다. 영국해군 머레이 멕스웰(Murray Maxwell) 대령이 1816년 군함을 이끌고 서해안 탐사차 서천 마량진 해안에 들렸고, 이때 한국 최초로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게 성경을 건네주었다는 기록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서천군은 2004년 학계와 종교계의 고증을 거쳐 전래 사실을 재확인 한 후 기념비를 세우고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마량포구에는 선교사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을 2013년 건립하고 2015년에는 부속관인 가우처홀을 건립해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고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과 2층은 전시관으로 3층은 전망카페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은 다목적실로 꾸몄으며 인근에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총사업비 82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4년 6월 착공하여 2년 2개월 만에 완공했다. 서천군은 앞으로 마량항을 국제적인 해양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산 제이파크 1단지 '그린홈으뜸아파트' 선정, 우리는 이웃사촌

2016. 09. 28. | 논산시 | 도시주택과



논산 제이파크1단지 아파트가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됐다. 그린홈 으뜸아파트 사업은 충남도가 입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문화 조성, 에너지 절약 실천,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이파크1단지는 단지 내에 2만 2천여 주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폐보도블럭을 활용해 아파트 둘레길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변화시킨 점,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화합잔치와 윷놀이 대회 개최 등 이웃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제이파크1단지는 시설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자금으로 3천만원과 그린홈 으뜸 아파트 동판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공모에 충남 대표로 추천된다.

보령신항 건설 가시화, 황해권 명품해양관광도시 건설 탄력

2016. 09. 29. | 보령시 | 문화공보실

보령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의 국가계획 반영으로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보령시에 큰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항만시설에 대한 국가계획 중 항만개발 촉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을 감안, 기본계획의 일부를 수정 추진코자 하는 계획으로 2016년 9월 29일 고시됐다. 이번에 반영된 보령항 관련 계획은 보령신항을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항만시설용부지 55만1000㎡ 조성과 호안 2228m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밖에 영보산단 LNG부두 접안능력증대, 보령화력 선적부두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보령시는 보령신항 건설 2단계로 물류와 여객, 레저, 마리나, 크루즈 등 관광을 아우르는 다기능복합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새단장 마치고 본격 개관

2016. 10. 11. | 태안군

태안군은 2002년 개관한 2016년 고남패총박물관의 노후화 개선과 전시 공간 확장을 위해 8월 제1전시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새로이 개관했다('16.09.). 태안군은 제1전시관에 체험전시실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체험전시실에는 포토존,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한 쌍방향 체험공간 장치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패총, 청동기시대 유물들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과거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군은 건물 내외에 각종 안내판과 벤치, 자동문 등을 설치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태안-보령 간 연륙교 완공을 앞두고 앞으로 지속적인 박물관 리모델링이 이뤄질 것이라며 태안패총박물관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태안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복청 지역 상생발전 위해 손을 잡다

2016. 10. 21. | 공주시

공주시는 2016년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시장과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청-공주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으로 확산시켜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건설되도록 상호 협력, ②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공동 협력

사업 발굴 등 상생발전전략 모색, ③ 기반시설 등의 인프라와 백제문화권 등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협력방안, ④ 연계 교통망 구축 및 광역 SOC 확충을 통한 소통과 융합 실현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인프라의 공동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특히 금강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문화 ·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협력방안 등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2016. 10. 27. | 공주시

공주시가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11월 1일 부터 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신 · 요양 · 격리병원은 공업지역(전용, 일반)과 녹지지역(보전, 생산), 농림지역에서 제한되는 등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이 일부 제한된다. ② 개발 규모 2천㎡ 미만 진입 도로폭을 4m 이상 확보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3m(포장면)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시설의 경우 근린상업지역(연면적 3천㎡ 이상)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③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시설 건폐율은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의 가공, 포장, 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상향 조정했다. ④ 이 외에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공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요람 '논산문화원' 준공식

2016. 10. 28. | 논산시 | 문화예술과

논산시는 2016년 10월 28일 논산시장과 논산시의회의장, 문화원장, 충남문화원연합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논산문화원 준공식을 가졌다. 문화원은 1957년 11월 설립된 후 단독원사가 없어 논산시문화예술회관 2층에 일부공간(78㎡)을 사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향토자료 수집 및 보관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풍요로운 문화 활동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배움터 등의 공간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 201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로 사업을 시작하여, 6월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 착공했으며, 지산동 일원에 총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6천 6백㎡, 건축면적 1천 7백㎡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의 논산문화원을 건립했다. 논산문화원은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확대는 물론, 향토문화자료 보전 및 문화서비스 제공의 폭을 넓혀 문화예술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군, '고덕작은도서관' 개관

2016. 11. 09. | 예산군 | 기획실

예산군은 주민과 청소년의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고덕면에 조성한 '작은도서관'을 개관해 2016년 12월 8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고덕작은도서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5천 5백만원과 도비 1천 250만원 등 총 9천만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10월 31일 개관한 청소년미래센터 1층에 100㎡ 규모로 조성됐다. 작은도서관은 예산군립도서관, 삽교공공도서관, 덕산작은도서관 등의 군 공공도서관 회원카드로 이용 가능하며 1인당 4권씩 10일간 빌릴 수 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예산군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편리하고 안락한 독서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2016. 11. 15. | 금산군 | 문화공보관광과

금산군은 금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시 · 교육 · 휴식의 복합문화시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현 향토관 자리로 10,270㎡의 대지에 연면적 2,100㎡, 지상 1 · 2층의 건물이 들어선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8년 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0억원이 투입되고, 착공은 2017년 1월이다. 금산역사박물관은 1층 금산역사관과 2층 생활민속박물관으로 나눠진다. 1층에는 선사시대, 삼국 ·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 · 현대관 등 4개의 전시실로 구분, 시대별 변천사를 연출하고, 2층은 금산농악체험관 및 근 · 현대생활문화관, 지구촌 생활민속관으로 이루어진다. 금산군은 금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전시와 교육, 휴식까지 취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보는 물론 군민들의 문화 자존감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관 및 공공공간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본격 추진

2016. 09. 12.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2016년 8월 25일 향적산 토지소유자인 향한리 송계와 약 5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7년에 투자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3억원이 충청남도와 산림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최종심사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주요 개발내용은 ① 향적산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체계 도입, ② 향적산 편백나무 철쭉 단지조성을 위한 자체 직영 육묘장 운영, ③ 2020세계軍문화엑스포와 연계 방안 모색 등 향적산에 차별화 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자긍심을 드높일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시는 특히, 2020년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와 연계한 軍관련 프로그램 발굴, 계룡시 역사와 문화 유래의 스토리텔링 발굴 방안 등 치유의 숲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 '버그내순례길' 2016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2016. 09. 28. | 당진시 | 홍보팀

충청남도 내포지역의 천주교와 관련된 근 · 현대 문화와 지역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녹여낸 '버그내순례길'이 '2016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의 뛰어난 경관을 알리기 위해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와 아시아 인간 주거환경협회, 아시아 경관 디자인 학회,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2010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는 경관 국제상이다. 이번 심사에서 당진시는 '버그내순례길'을 주제로 한국 최초의 사제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이자 한국 천주교의 요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솔뫼성지를 비롯해 역사 ·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천주교 관련 유적을 묶은 경관을 소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진시, 면천읍성 저잣거리 복원 본격화

2016. 09. 29. | 당진시 | 홍보팀

지난 2007년부터 총 사업비 292억원을 투입해 면천읍성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당진시가 저잣거리 조성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2016년 11월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저잣거리 복원에 앞서 정밀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서벽과 치성 60m 구간과 연암(燕巖) 박지원 선생이 면천군수 재직 당시 세운 것으로 알려진 건곤일초정, 그리고 읍성 남벽 135m 구간과 남문에 대한 복원사업을 완료하고 읍성 내 7,500㎡ 규모의 영랑 효공원 조성사업도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저잣거리 조성사업 용역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면천읍성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며 차질 없이 사업에 착수해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저잣거리 조성과 성벽, 관아에 대한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천안천변 산책로에 목교 7개소 설치 완료

2016. 10. 10. | 천안시 | 건설도로과

천안시에 천안천 산책로가 설치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하천에 설치된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하천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노약자(유모차) 및 자전거 이용자 등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공사에 착수하여 목교 7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천안시는 용곡동~신부동까지 조성된 천안천 산책로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교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시설을 정비하여 많은 시민들이 천안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진시, 황금들녘 따라 제방 질주 매력 속으로

2016. 10. 14. | 당진시 | 홍보팀

삽교호 남쪽으로 합덕과 우강지역에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곡창지대의 평야가 있는데 삽교호 관광지에서 우강면 부장리까지 편도 9.5㎞(왕복 19㎞) 구간의 삽교호 제방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다. 본래 이 제방 길은 홍수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포장한 길이지만 당진시가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 관광자원화 할 목적으로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자전거 쉼터와 이정표, 편의시설을 길 중간 중간에 설치하면서 가을철 자전거 길 명소로 탈바꿈했다. 특히 자전거 길 조성과 함께 삽교호 관광지 내에 자전거 터미널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전거 길 이용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2017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삽교호 호수공원에는 자전거 캠핑장도 설치될 예정이어서 향후 자전거 마니아들의 자전거 행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지로 조성한다

2016. 10. 17. | 보령시 | 문화공보실

보령시가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선교 성지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대도를 다양한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한 해양문화관광지로 조성키로 했다. 지난 2013년 백석대학교와 고대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우수관광콘텐츠 및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관 · 학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16년 6월에는 루터대와 효산의료재단 샘병원과의 정보교류 및 정책연구, 지역주민 교육 및 의료 지원 사업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G.O.D'라는 컨셉으로 명소화하기로 했다. 'G'는 Gate로 역사문화 특성화 테마공간, 'O'는 Ocean으로 해양문화관광 중심의 스토리를 적용한 테마파크 기반의 특성화 공간, 'D'는 Destination으로 해양문화 기반의 새로운 테마공간으로 인접 지역인 원산도 개발사업과 연계해 연계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전시, 체험, 숙박, 안내 등 복합 테마공간을 확보하는 '베를린 하우스', 이색 테마공원, 스토리 기반 체험 공간의 '고대도 앵커파크', 해양문화관광지로서의 고대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디자인, 관광 환경 개선과 지역민 소득창출 모델 확보와 함께 각종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천안시, 가로수 디자인 전지로 새단장

2016. 10. 17. | 천안시 | 공원관리과

천안시는 도심 가로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특성화된 가로수 디자인 전지 방법 시행으로 품격 높은 도시경관 만들기에 나섰다. 보도 폭 및 건물과의 거리가 좁은 성정 · 두정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와 차도로 길게 뻗은 측면의 나뭇가지를 과감히 제거하여 전지하고,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지방식으로 성정 · 두정로의 대형 건축물과 사각전지 된 가로수가 잘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낼 전망이다. 천안시는 도심에 밀집된 직선화 구간에 디자인 전지를 우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가로환경과 구간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전지 방법을 적용하여 도심 가로 경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2016 녹색식물 커튼 조성사업' 최우수 기관 표창

2016. 11. 03. | 천안시 | 시설관리공단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2016 녹색식물 커튼 조성사업'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천안축구센터에 설치된 녹색식물 커튼은 건물 외벽에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건물 내부에 들어오는 외부 직사광선을 차단해 실내 온도를 2~3도 낮춰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축구센터는 2016년 연중 관리가 용이하고 열매 수확이 가능한 여주와 수세미를 재배하여 고객 휴식공간 및 도심 경관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및 친화적 녹지공간 조성 등 추진실적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2016년에는 녹색커튼 사업에 참여한 천안지역 8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 시설물에 녹색식물 커튼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녹색성장을 통한 친환경 도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서산 잠홍저수지, 시민 친수공간으로 탈바꿈

2016. 11. 07. | 서산시 | 공보전산담당관실

서산시는 2013년부터 약 4년 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 총 47억 6천만원을 들여 잠홍저수지 수변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이 일대를 시민에게 개방 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수지 수변을 따라 데크로드 2,126m, 보도교 6개소 78m, 주차장 및 제당길 안전난간 680m 등 3,902m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둘레길 주변 곳곳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와 의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서산시는 잠홍저수지가 위치한 음암면 부산 · 상홍리 등 주민은 물론 동문동 거주 시민들이 손쉽게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수산 자연휴양림 노송숲, '전국 아름다운 숲' 선정

2016. 11. 08. | 부여군

지난 5일 유한킴벌리,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 주관한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만수산 자연 휴양림이 '공존상'을 수상했다. 소중한 생명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숲을 늘 푸르게 가꾸자는 취지로 서류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 현장심사를 거쳐 아름다운 생명상 1개소, 공존상 8개소, 누리상 1개소, 숲지킴이상 1개소 등 최종 11개소가 선정되었다. 만수산 자연휴양림 노송숲은 차령산맥 끝부분 만수산(해발 575m)의 여덟 개의 골짜기와 어우러져 쭉 뻗은 노송이 아름다운 곳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다. 휴양림 인근에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중층구조의 대웅전과 김시습 선생의 천년고찰 무량사 등 문화탐방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부여군은 이번 수상으로 만수산 자연휴양림 노송숲이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 다시 입증되었고, 철저한 관리와 활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직산읍 수헐1리 '새로운 어르신 쉼터' 제공

2016. 11. 10. | 천안시 | 시설관리공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1리 경로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30년전에 지어진 이 경로당은 노후하고 협소해 2억원을 들여 2016년 6월초에 건축을 시작하여 10월말 건축 및 준공을 마쳤다. 30여평의 면적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 이 경로당은 그동안 불편하게 생활하던 마을 어르신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간으로 보다 나은 휴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부여 종합운동장 복합체육공간으로 거듭나

2016. 11. 16. | 부여군

부여군은 종합운동장 내 사용빈도가 낮은 야외공연장, 씨름장, 게이트볼장을 티볼장, 다목적구장, 인공암벽장, 패밀리헬스장, 가족쉼터,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복합체육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종 대회와 행사 장소로만 활용되었던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을 가족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총 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규암면 나복리 종합운동장 내 면적 17,500㎡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난이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과 가족들의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을 가족쉼터 및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군민 누구나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마을만들기

'희망나눔 집수리'로 행복 나눠

2016. 09. 06. | 천안시 | 서북위생청소과

천안시 서북구는 건설사 스스로 참여하는 나눔, 봉사활동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집수리 사업인 '희망나눔 주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랑의 집수리로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서북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역점 추진중인 이 사업은 대형건설사의 지역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기적 및 지속적으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6년 5월에 '희망나눔 주거 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집수리 대상 가구 실태조사와 함께 8월에는 관내 '희망나눔 사업' 참여 건설사 31개사와 취약계층 33가구를 연계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배 · 노후장판 교체, 창틀교체, 벽체단열, 싱크대 교체, 천정누수 등 전반적인 실내 주택 개 · 보수를 중심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2016년 사업대상에 선정된 33가구에 대하여 2016년 11월말까지 집수리 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세계의 다양한 매운 음식을 맛보러 청양으로 오세요!

2016. 09. 06. | 청양군 | 기획감사실

청양군의 '매운 고추 체험나라' 사업이 2017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된다. '매운 고추 체험나라'는 청양군의 대표 브랜드인 고추를 이용해 매운 음식이라는 콘셉트로 매운 음식 체험장, 유리정원, 머슬파크 등 체험시설과 관람 · 휴게시설이 갖춰진 종합적인 전시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 및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앞으로 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이 기대되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청양군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충남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내륙권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2016. 09. 23.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가 '2017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마을 고유한 자원과 특징을 살려 주민 주도로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활기찬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팥거리마을 경관개선사업', '선바위마을 종합개발사업', '향한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마을은 2017년부터 4년간 총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규마을 조성 및 환경과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情 넘치는 아파트 "우리는 이웃사촌"

2016. 09. 27. | 충청남도 |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충청남도는 2016년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논산 제이파크 1단지와 아산 신도브래뉴, 천안 불당동 하이빌을 선정했다.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은 입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문화 조성, 에너지 절약 실천,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① 단지 내에 2만 2천여 주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폐보도블럭을 활용해 아파트 둘레길을 조성하며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변화시킨 점, ②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화합잔치와 윷놀이 대회 개최, ③ 주민 화합과 노인회 · 부녀회 간 활발한 연계사업 추진, ④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휴게실을 쾌적하게 해 직원들을 배려, 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⑥ 중고물품 나눔 및 책 · 운동화 등의 기부에서 호평을 받아 선정되었다. 충청남도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공동주택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그린홈 으뜸아파트'는 전 국민의 70%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며 충청남도 내 아파트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금산군, 농촌지역개발 국비 52억 5천만원 확보

2016. 10. 11. | 금산군 | 문화공보관광과

금산군 관내 4개 지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전국 공모사업 선정으로 2017년부터 국비 52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발전의 가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다. 선정된 지역은 부리면, 남일 신동2리, 진산 부암 1리, 남이 성곡 2리 등으로 이곳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 사업 및 정비가 이뤄진다. 주요사업으로 문화 · 복지시설 확충, 테마가로조성, 쾌적한 수변환경 정비, 지역역량 강화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부리면), 이와 함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생태 · 환경 분야에 신동2리, 부암1리, 문화 · 복지 분야 성곡2리 등 3개 마을이 선정돼 2019년까지 3년간 각 마을별로 약 5억 원씩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특화된 마을단위 사업이 진행된다. 금산군은 2018년 이후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도모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 · 지역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만든다

2016. 10. 12. | 충청남도 | 교육법무담당관 교육협력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은 2016년 10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충남형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 및 우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은 '상생과 협력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지역 자원을 공유 · 활용하고, '마을 속의 학교', '학교 속의 마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내 문화 · 체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② 양 기관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할 인성 및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③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며, 다문화를 중심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두 기관은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공급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협조하며, 재난과 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생명존중,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교육혁신모델 19개 전략과제와 24개 세부사업 발굴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예산군,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 추진

2016. 10. 13. | 예산군 | 기획실

예산군은 어둡고 칙칙한 골목길을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90년대 이전까지 상업의 중심지였던 예산시장이 현재는 노후된 상가와 빈 점포가 많아 삭막한 환경으로 변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된 상가,

공가로 인한 삭막한 예산시장 주변 예산읍 신흥길 일원을 벽화 및 조형물 등으로 꾸며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골목길 활성화를 구현할 방침이다. 예산군은 지역 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볼거리 및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골목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공동육아나눔터 7호점’ 개소

2016. 11. 21. | 천안시 | 성가족과

천안시가 위탁하여 백석대학교가 운영하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6년 11월 불당이안아파트 내 공동육아나눔터 7호점을 개소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센터(성정동) 내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시작으로 불당동(동일하이빌), 백석동(주공11단지), 쌍용동(느티나무 도서관), 용곡동(꿈나래도서관), 신부동(천안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이어 7번째 나눔터(불당2호점)를 불당이안아파트 내에 마련했다. 이 지원센터는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천안형 마더센터’를 목표로 핵가족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를 가족과 이웃이 함께 극복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자치적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하고, 육아정보를 나눔으로써 육아 스트레스 해소와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특히, 이번 개소한 불당이안아파트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업하게 되어 의미를 더했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당진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추가설치

2016. 09. 01.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는 무수동5길 외 3개 도로, 65곳에 야간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은 낮 시간대에 태양광을 축전한 뒤 야간에 LED 등을 작동시키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과 전력소비를 최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눈에 잘 띄고 골목이 밝아지는 효과도 있어 귀갓길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인성이 좋아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찾기도 용이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는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은 야간에 조명 등 역할과 범죄예방 등 당초 설치 목적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으로 LED 건물번호판을 확대 설치해 시민 안전 확보와 도로명주소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도로명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2016. 09. 27. | 공주시

공주시가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주변 25개 건물에 대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는데, 건물번호판이란 해당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며,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규격과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직접 디자인하고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 공주시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공산성과 무령왕릉 주변 건물에 세계유산과 공주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가미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고도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명품 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백미고을 일원 등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적산 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2016. 10. 13.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는 향적산 등산로 일원에 등산객의 안전을 지켜줄 국가지점번호판 5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표기하여 조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해 인명구조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위치표시 정보체계이다. 최근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랑색 바탕의 번호판으로 설치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국가지점번호판 내에 표시된 QR코드를 확인하면 현재의 위치가 나타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국가지점번호로 신고하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 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위치정보를 서로 공유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구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여군 남면, 깨끗한 버스승강장 만들기 앞장

2016. 10. 26. | 부여군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탄소 발열 벤치가 부여군 3개소에 설치된다. 2016년 10월 전기공사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벤치 설치 사업은 아직도 5일장이 열리면 부여읍으로 시장을 보러 오는 어르신들과 농어촌 버스를 기다리는 군민들에게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벤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부여읍 서독안경원, 성요셉병원, 뜨레쥬르 옆이며, 부여보건소에서 경찰서 구간인 성왕로 주변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탄소 발열 벤치는 직류 전원을 교류로 바꿈으로써 문제 발생 시 벤치에 앉은 이용객들에게 해를 주지 않게 설계되었다. 또한 버스시간 동안 동작되는 타이머에서 외부 온도와 벤치 온도를 동시에 읽어주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부여군은 벤치의 실효성을 확인한 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 작품 뺨치는 우수 광고물 ‘여운’

2016. 11. 18. | 당진시 | 홍보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 시상식에서 충남 대표로 출품된 작품 ‘여운’이 행정자치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당진시 소재 기경광고사 정기호 씨의 것으로, 2016년 5월에 열린 ‘제11회 당진시 우수광고물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9월에 열린 ‘제21회 충남옥외광고대상전’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었다. 카페 광고물인 ‘여운’은 고목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생의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산 세월을 후회하며 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 충동에서 작가가 붙인 이름으로, 오래된 고목이 하얀 광고 이미지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관계자는 당진시에서도 옥외광고 산업 발전과 광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